

고려사원 강당지 남북 방형단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North and South Square-Platform
at the Lecture Hall Sites of Goryeo Buddhist Temples

현 승 욱*

Hyun, Seung-Wook

(국립문화재연구소 건축문화재연구실 선임연구원)

Abstract

A very unique case is found in the architectural remains related to the north and south square-platform at the lecture hall site of Hwangnyongsa, that of Anyangsa, and the estimated lecture hall site of Beopsusa as they are not observed in the other lecture halls. The platform has been discovered at only those three Buddhist temples from Goryeo, and its case has not been found in ancient Buddhist temples of China and Japan. This study thus set out to investigate the north and south square-platform at lecture hall sites by examining in details its architectural remains at the three Buddhist temples and reviewing the Buddhist literature about the lecture halls of ancient Buddhist temples. Based on the findings, it was estimated that the architectural remains of north and south square-platform at the lecture hall sites of Buddhist temples were those of platform for Buddhist sermons or those of high chair platform. While the north square-platform involved the remains of north high chair for the Lecturer that gave lectures on the Buddhist scriptures, the south one did those of south high chair for the Reader who recited the Buddhist scriptures.

주제어 : 강당, 방형단, 설법단, 고좌

Keywords : Lecture hall, Square-Platform, Platform for Buddhist sermons, High chair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의의

고대 불교사원 내 강당은 설법, 의례 등이 이루어지는 주요 건축물이다. 그 동안 국내 사찰 강당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도 적지 않은 편이다.¹⁾

최근 국내에서 다수의 고려사지가 발굴 조사됨에 따

라, 사찰 강당지에 대한 발굴 자료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 가운데 안양사 강당지 및 범수사 2호 건물지(추정 강당지)에서 발견된 남북 방형단 유구는 황룡사 최종 강당지 관련 유구와 거의 동일한 양상으로 출토되어 관련 연구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다.

사실,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는 1976년 황룡사 최종 강당지(고려 시기)에서 처음 조사되었는데, 발굴 당시에는 그 용도를 알 수 없었다.²⁾ 이후 안양사지 및 범수사지가 발굴되기까지 수십 년 동안, 이와 유사한 사례는 국내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일본에서도 확인된 바 없었고, 관련 연구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상술한 강당지 남북 방형단의 성격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황룡사지, 안양사지, 범수사에서 확인된 강당지(또는 추정 강당지)

* Corresponding Author : hyun521521@hotmail.com

본 연구는 2016년 황룡사 복원 제4차 심화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한국건축역사학회 2016년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되었던 「황룡사 강당지 南北 方形壇 연구」를 심화·발전시킨 연구임.

1) 대표적인 연구 성과는 아래와 같다.

이나영, 「한국 고대 불교사원의 강당건축에 관한 연구」, 경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진익정, 「한국 사찰 내 강당의 건축 형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홍병화, 「우리나라 사찰건축에서 봉불과 강설공간의 변화과정」, 건축역사연구, 19권, 4호, 2010.8.

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90쪽

남북 방형단 유구를 상세히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관련 불교 문헌 자료를 검토하여 남북 방형단의 성격, 용도 등을 추정하였다.

1-2. 기존 연구 성과

상술한 바와 같이, 안양사지 및 범수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가 근래에 진행되어 이를 반영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는 황룡사 강당지 남북 방형단의 용도에 대한 간략한 추정이 대다수이며, 이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장경호는 황룡사 강당지 방형단 유구를 설법단으로 추정하였다. 그는 최종 강당(정면 9칸)에는 중앙에 한 개의 설법단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남북 방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또한, 창건 강당(정면 10칸)에는 ‘동·서 2개(講師와 讀師의 高座임)’의 설법단이 있다고 서술하였으나, 그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³⁾

이승연은 『入唐求法巡禮行記』의 일부 기록⁴⁾을 근거로 황룡사 및 안양사 강당지 남북 방형단을 설법단(고좌대)으로 보았으며, 북편을 북좌(北座), 남편을 남좌(南座)로 각각 추정하였다.⁵⁾ 이는 안양사 강당지 발굴 사례를 처음으로 언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 방형단을 북좌와 남좌로 각각 상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된다.

양은경은 중국 북제 시기 문헌 기록, 즉 북제 강당 서쪽 또는 서남쪽에 고좌가 위치하였다는 기록을 근거로 하여,⁶⁾ 황룡사 강당지 내부 서편에 치우쳐 위치하고 있는 방형단을 ‘고좌를 마련한 자리’로 추정하였다.⁷⁾ 하지만, 남북 방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황룡사 강당지 남북 방형단을 불단으로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나영은 현존 일본 사찰 강당의 불상 봉안 사례와 국내 고대 금당지 불상 지대석 사례를 근거로 하여, 황룡사 남북 방형단을 불단 지대석으로 추정하

였다.⁸⁾ 한옥 역시 현존 일본 강당 사례를 참고하여, 이를 불단으로 추정하였다.⁹⁾

하지만, 이들 연구는 불상을 봉안하는 일본 강당 사례에 의존한 점, 그리고 논문 발표 시점 이후로 설법단(고좌대) 추정의 결정적인 근거인 안양사지 및 범수사지 방형단 유구가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다소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북 방형단 유구를 설법단으로 상정한 기존 연구 성과를 전제로 진행하였으며, 기존 연구에서 언급되지 않았던 범수사지 발굴 조사 자료 및 대장경을 비롯한 각종 불교 문헌 자료를 추가 근거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발굴 유구 검토¹⁰⁾

2-1. 황룡사 최종 강당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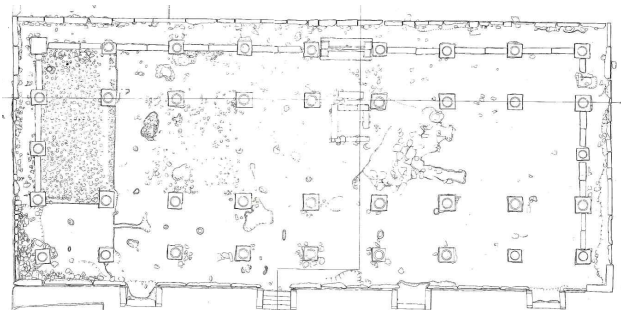
황룡사지는 1976년부터 1983년까지 발굴되었으며, 강당지에 대한 조사는 1976년에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정면 9칸, 측면 4칸의 최종 강당 유구가 확인되었고, 그 하부에서 정면 10칸, 측면 4칸의 창건 강당 유구가, 다시 그 하부에서 추정 승방지가 차례로 확인되었다.¹¹⁾

황룡사 강당지 남북 방형단은 최종 강당 평면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에 고려 시기에 조성된 유구로 볼 수 있다.

8) 이나영, 앞의 논문, 2000, 60~62·72쪽

9) 한옥, 「유구를 통한 6·7세기 백제가람 건물의 복원적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134~135쪽

10) 불국사 무실전지에서 방형단 유구[세로 6.6尺, 가로 6.8尺(2.18m)]가 조사된 바 있다. 이는 그 규모 및 위치로 보아, 황룡사, 안양사, 범수사 등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북편에서만 확인되었으며 남편에서는 관련 유구가 없었다. 하지만, 주지하다시피 불국사 발굴 조사는 당시 복원을 위하여 단기간에 걸쳐 신속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세한 발굴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필자는 조사된 북편 방형단 유구와 더불어 남편에도 동일 유구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한다. 다만, 발굴 자료가 부족하여 세밀한 검토가 불가능하므로, 본 연구의 발굴 유구 사례에서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불국사 무실전지 발굴 실측도

(출처: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불국사 복원공사보고서』, 1976, <도판 154> 편집)

11)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1984, 41~43쪽

3) 장경호, 『백제사찰건축』, 예경산업사, 1991, 270쪽;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2, 137쪽

4) 『入唐求法巡禮行記』, 권2, 赤山院講經儀式 및 新羅一日講議式的 일부 기록을 근거로 하였다. 상세한 내용은 3장의 ①-1, ①-2를 참고할 것.

5)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법당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60쪽

6) ‘강당의 서쪽 처마 회랑에 이르니 스님이 높은 의자[高床]에 앉아 있었는데...’(『續高僧傳』, 권25, 齊鄴下大莊嚴寺釋圓通傳)와 ‘승공은 들어가 서남쪽에 있는 의좌[床] 위에 앉았다.’(『集神州三寶感通錄』, 卷下)라는 기록을 그 근거로 삼았다. (양은경, 「황룡사지 동서 금당지와 강당지의 불상봉안 여부와 존상명」, 신라사학보, 23호, 2011.12, 375~376쪽 참조)

7) 양은경, 위의 논문, 2011.12, 375~377쪽



그림 1. 황룡사 최종 강당지 발굴 평면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건물복원 기초연구』, 2012, 124쪽)

발굴보고서에서는 방형단 유구를 ‘長臺石으로 둘러 낀 方形的 壇’으로 서술하였는데, 이는 최종 강당지 서편에서 동편으로 4번째 칸에 위치하였다. 방형단 한 변의 길이는 약 3m로 조사되었으며, 방형단 외부에는 전돌이 일부 깔려 있었다.

<그림 2>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발굴 당시 북편에서는 방형단을 구성하는 장대석 여러 매와 그 북쪽에 가로로 놓인 장대석 1매가 확인되나, 남편에서는 장대석은 남아 있지 않고 적심석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발굴보고서에서는 ‘이 두 개의 壇이 同時에 있었던 것인지 후에 옮겨진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으며, 그 용도 또한 알 수 없다고 하였다.¹²⁾



그림 2. 황룡사 최종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

2-2. 안양사 강당지

안양사지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진행되었으며, 강당지는 2009년에 조사되었다.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노출된 강당지 유구는 고려 전기 및 중기의 것으로 추정되며, 그 하부에서 통일신라 건물지가 확인되었다.¹³⁾ 따라서,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도 대략 고려 전기에서 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양사 강당지는 정면 9칸, 측면 4칸의 규모로 황룡사 최종 강당지와 동일하나, 방형단 유구의 위치는 서편으로 치우치지 않고 어간에 위치하고 있다.

안양사 남북 방형단은 북편과 남편 모두에서 확인되며, 길이 1.1~2.35m, 폭 0.4~0.5m 정도의 장대석 여러 매로 구성된다. 방형단 한 변의 길이는 약 2.35m로 황룡사지 방형단보다 다소 작은 편이다. 그리고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남편 방형단 하부 중앙부에 폭 0.4m의 탐색 피트를 남북으로 길게 설정하여 단면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장대석 아래에 다량의 기와편을 깔아 지정한 사실도 확인되었다.¹⁴⁾

북편 방형단의 북쪽과 남편 방형단 남쪽에서는 길이 1.3~1.4m, 폭 0.5m 정도의 장대석 1매가 각각 확인되었다. 장대석 상면에는 안쪽으로 넓은 면을 파낸 치석 흔적이 보이는데, 이는 계단석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장대석은 돌계단 가장 아래에 놓인 계단 지대석으로 추정할 수 있다.¹⁵⁾

13) 안양사·(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사지』, 2013, 80·330쪽

14) 안양사·(재)한울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13, 104~106쪽

12)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앞의 책, 1984, 9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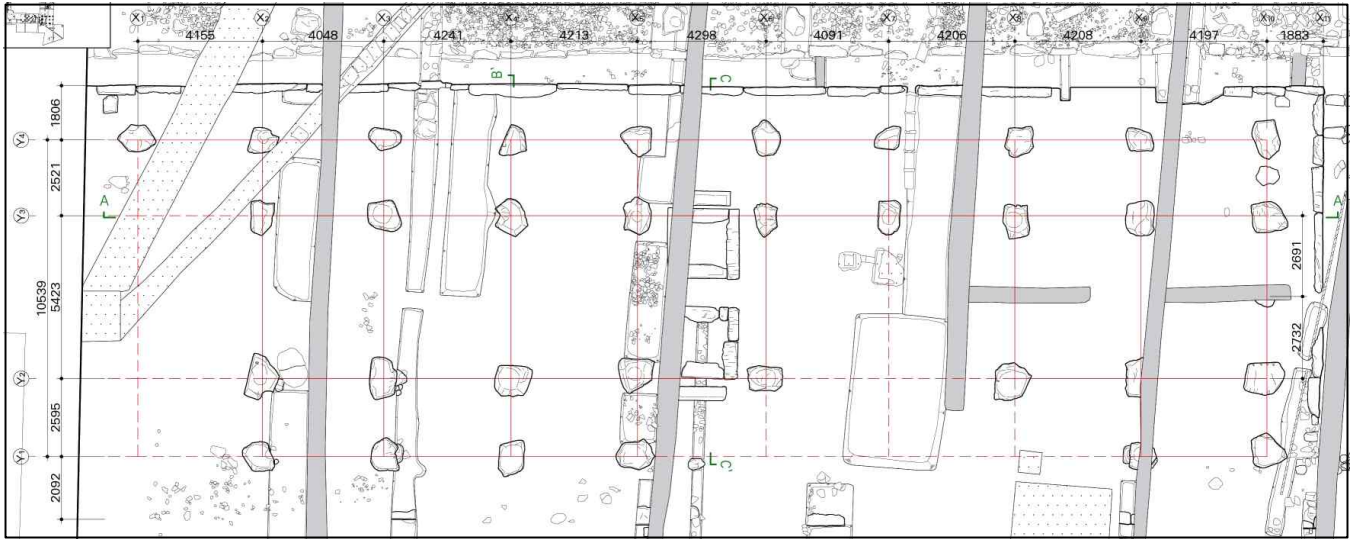


그림 3. 안양사 강당지 발굴 평면도 [출처: 안양시·(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사지』, 2013, 111쪽 편집]

보고서에서는 안양사 강당지 남북 방향단을 ‘설법단의 기저부로 보이는 정방형 구조물 2기’라고 기술하였으며, 그 용도나 성격이 황룡사 방향단 유구와 동일한 것으로 보았다.¹⁵⁾



그림 4. 안양사 강당지 남북 방향단 유구 [출처: 안양시·(재)한울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13, 106쪽 편집]

2-3. 법수사 2호 건물지(추정 강당지)

법수사에 대한 발굴은 2013년 지표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1차, 2016년 2차 발굴 조사가 진행되었다.¹⁷⁾ 그 결과, 건물지 8동, 도보시설 3개소, 배수시설 4개소, 담장

15) 장대석에 약간의 단을 주어 계단석이 밀리지 않게 하는 수법은 고려시대 삼천사지·부도전지 계단과 범천사지·부도전지 계단 등에서 확인된다. [안양시·(재)한울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13, 304쪽 참조]

16) 안양시·(재)한울문화재연구원, 위의 책, 2013, 106·304쪽

2개소, 축대 3개소, 추정탑지 등이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2호 건물지에서 황룡사, 안양사 강당지와 유사한 남북 방향단 유구¹⁸⁾가 발견되었다.

발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호 건물지는 3차례에 걸쳐 증·개축이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어, 하부로부터 상부에 이르기까지 순서에 따라 2-1, 2-2, 2-3 건물지로 구분된다. 이들은 모두 고려 시기 유구로 추정되므로, 남북 방향단 역시 고려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¹⁹⁾

남북 방향단 유구는 2-2 건물지(정면 6칸, 측면 4칸)에서 확인되었는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3번째 칸에 위치하고 있다. 북편에는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구성된 방향단과 그 북쪽의 길이 약 1.6m, 폭 약 0.7m 크기의 석재 1매가 확인되었고, 남편에는 방향단을 구성하는 장대석 일부만이 확인되었다.

방향단은 한 변이 약 2.1m의 정방형으로서 안양사 강당지 방향단과 비슷한 규모이며, 방향단 주위로 고르게 깔려 있는 건물은 황룡사의 경우와 유사하였다.

17)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法水寺址 三層石塔 주변지역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16.8, 2·4~5쪽

18) 발굴 조사 자료에서는 이를 불단 유구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구 양상이 황룡사 및 안양사 강당지 남북 방향단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필자는 법수사 2호 건물지를 강당지로, 남북 방향단 유구를 설법단(고좌대) 유구로 각각 추정하였다.

19) 발굴 조사 자료에 따르면, 2-1 건물지에서는 3개의 초석만이 확인되어, 건물 규모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2-2 건물지에서는 초석 14개, 적심 4개소, 고막이석 등이 확인되어, 정면 6칸, 측면 4칸 규모로 추정되며, 서편에서 동편으로 3번째 칸에서 불단(필자 추정 남북 방향단) 유구가 확인되었다. 그리고 최종 유구인 2-3 건물지에서는 초석 6개와 적심 5개소가 확인되어, 정면 6칸, 측면 3칸 규모로 추정되며, 동편에서 삼존불단 유구가 조사되었다.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법수사지 정밀발굴조사 약보고서』, 2015.12, 17쪽]

추정 근거가 다소 부족하다고 여겨지므로,²⁰⁾ 다른 사례와 같이 어칸 좌측 협칸에 위치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 문헌 자료 검토

본 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남북 방형단 유구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고대 사찰 고좌대 관련 기록 중 방위가 언급되어 있는 사례를 찾아 상세히 검토하였다.

우선, 기존 연구²¹⁾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 『入唐求法巡禮行記』 중 일부 기록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이는 일본 승려 엔닌이 839년 중국 산둥반도에 위치한 신라방(新羅坊) 적산법화원(赤山法華院)을 방문하여 남긴 기록 중 강당에 관한 내용의 일부이다.

①-1 赤山院講經儀式. 辰時打講經鍾. 打驚衆鍾訖, 良久之會大眾上堂. 方丈衆鍾, 講師上堂登高座間, 大眾同音稱嘆佛名, 音曲一依新羅, 不似唐音. …… 更有覆講師一人在高座南下座, 便讀講師昨所講文.²²⁾

적산원 불경 강의 의식. 오전 8시경에 강의를 알리는 종을 쳐 대중들에게 알리면, 얼마의 시간이 흐른 다음 대중이 강당으로 들어온다. 다시 대중에게 자리를 잡도록 알리는 종을 치면 강사가 법당으로 올라와 고좌에 앉고 대중은 같은 목소리로 탄불하는데, 그 음곡은 모두가 신라의 것이지 당음이 아니다. …… [다음날] 다시 복강사 한 명이 고좌의 남쪽 아래에 앉아 그 전날 강사가 강의한 문장에 관하여 대화를 나눈다.²³⁾

①-2 新羅一日講議式. 辰時打鍾長打. 擬了講師都講二人入堂. 大眾先入列坐, 講師讀師入堂之會大眾同音稱嘆佛名長引. 其講師登北座, 都講登南座了, 講佛便止.²⁴⁾

신라 산원 1일 강의 의식. 오전 8시경에 종을 친다. 긴 종소리가 나면 강사와 도강 두 명이 강당으로 들어온다. 대중들은 먼저 들어와 줄을 지어 앉아 있다. 강사와 독사가 강당에 들어올 때면 대중들은 한 목소리로 길게 찬불한다. 그러면 강사가 올라와 북좌에 앉고 도강이 남좌에 앉으면서 찬불을 멈춘다.²⁵⁾

20) 안양사지 발굴보고서에 따르면, ‘강당지 서측편은 초석이 일부 유실되었으나, 강당지 어칸(중앙칸) 설법단으로 여겨지는 장대석 기저부를 중심으로 본다면 위에서 산정한 규모(정면 9칸, 측면 4칸)가 맞다고 여겨진다. 강당지 서측 조사되지 않은 지역으로 강당지 북측 장대석 기단 열이 이어져 더 확장될 가능성도 있다.’[안양사·(재)한울문화재단연구원, 앞의 책, 2013, 304쪽 참조]라고 서술하였다. 즉, 정확한 평면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당지 방형단 유구가 어칸(중앙칸)에 있다고 가정하여 전체 평면을 추정하였으므로, 제고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

21) 이승연, 앞의 논문, 2010, 60쪽

22) 『入唐求法巡禮行記』, 第2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3)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신복룡 역, 선인, 2007, 130~132쪽

24) 『入唐求法巡禮行記』, 第2卷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25) 엔닌, 앞의 책, 2007, 132쪽



그림 5. 법수사 2호 건물지 발굴 평면
[출처: 성주군·(재)대한문화재단연구원, 『法水寺址 三層石塔 주변지역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16.8, 9쪽]



그림 6. 법수사 2호 건물지 남북 방형단 유구
[출처: 성주군·(재)대한문화재단연구원, 위의 책, 2016.8, 9쪽 편집]

2-4. 소결

이상으로 황룡사지, 안양사지, 법수사지에서 발견된 방형단 유구를 검토한 결과, 여러 가지 유사점을 확인하였다.

첫째, 남북 방형단 유구의 시기가 유사하였다. 황룡사에서는 최종 강당지, 즉 고려 시기 강당지에서 방형단이 확인되었으며, 안양사 강당지 및 법수사 추정 강당지도 고려 시기 유구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남북 방형단 유구는 고려 시기 사찰 강당 내부 시설 중 일부로 추정할 수 있다.

둘째, 남북 방형단 유구의 양상이 유사하였다. 방형단은 2~3m 규모의 정방형이며, 방형단의 북쪽과 남쪽에서 각각 계단 지대석으로 추정되는 ‘一’자형 석재가 확인되었다. 또한, 방형단 내부에서는 다른 시설이나 유구가 확인되지 않은 점도 동일하였다.

셋째, 남북 방형단 유구의 위치가 거의 유사하였다. 황룡사와 법수사의 방형단은 강당 내부 어칸 좌측 협칸에 위치하였다. 비록, 안양사의 경우 방형단이 내부 어칸에서 조사되었으나, 안양사 강당지의 정면 9칸 평면

이를 통해, 9세기 중엽 신라방 적산법화원 강당 내부에는 2개의 고좌, 즉 북좌(北座)와 남좌(南座)가 있었으며, 북좌에는 강사(講師)가, 남좌에는 독사(讀師)[도강(都講)이라고도 함]가 각각 자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강사는 전체 사원을 관장하며 강설을 담당하는 승려를, 독사(도강)은 강사를 보조하며 여러 불사(佛事)를 맡아 보는 승려를 말한다.²⁶⁾

이와 유사한 내용은 『法苑珠林』 중 남조 진나라 승려 석담수(釋曇邃)에 관한 기록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② 晋河陰白馬寺有釋曇邃，未詳何許人。……後寺僧經祠前過，見有兩高座，邃在北，弟子在南，如有講說聲。²⁷⁾

진나라 하음 백마사에 석담수가 있었는데, 어디 사람인지 자세하지 않다. …… 후에 그 절의 승려가 경사 앞을 지나다가, 두 개의 고좌가 있는 것을 보았다. 담수는 북쪽에, 제자는 남쪽에 있었으며, 마치 강설하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았다.

비록 ②에서는 ‘북좌’ 또는 ‘남좌’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으나, 북쪽과 남쪽에 각각 고좌가 있다는 것은 상술한 ①-2의 내용과 거의 같다. 특히, 승려 담수가 북쪽에, 제자가 남쪽에 자리한 것으로 볼 때, 담수는 강사의 역할을, 제자는 독사의 역할을 각각 수행하였을 것이라는 추정도 가능하다.

‘북좌’와 ‘남좌’의 표현은 남조 양나라 지공화상(志公和尚)의 십사과송(十四科頌)에서도 찾을 수 있다.

③ 四衆雲集聽講，高座論議浩浩。
南座北座相爭，四衆爲言爲好。²⁸⁾

사부대중이 운집하여 청강하는데,
고좌는 그 논의가 넓고 크구나.
남좌와 북좌는 서로 다투는데,
사부대중은 말하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네.

③은 십사과송 중 하나인 「眞俗不二」의 일부 구절이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고좌’, ‘남좌’, ‘북좌’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 이들 고좌 위에 앉아 강설하는 승려를 가리킨다. 따라서 남좌와 북좌가 서로 다투는 구절은 남좌에 앉은 승려와 북좌에 앉은 승려가 열띤 논쟁을 벌이는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남조 시기에

북좌 및 남좌가 실제로 존재하였다는 것을 문헌을 통해 알 수 있다.

한편, 문헌 기록에서 북좌 및 남좌 이외에도 동서 방향의 고좌²⁹⁾도 찾을 수 있었다.

④ 遂於大齋日，禪師爲衆說三階佛法。……當此優婆夷發願之時，其禪師被神打，失音不語。西高座上唱集錄者，亦失音不語。³⁰⁾

마침내 큰 재일에 선사가 대중을 위해 삼계불법을 설하였다. …… 우바이가 발원할 때에, 선사가 신에게 두들겨 맞고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못하였다. 서고좌 위에 창을 집록하는 자도 역시 소리가 나오지 않아 말을 못하였다.

⑤ 二十三日。光宅寺法雲。於華林殿前登東向高座爲法師。瓦官寺慧明。登西向高座爲都講。……講畢。耆闍寺道澄。又登西向高座。唱此斷肉之文。次唱所傳之語。³¹⁾

23일 새벽, 광택사 법운 스님은 화림전 앞에서 동향고좌에 올라 법사가 되고, 와관사 혜명 스님은 서향고좌에 올라 도강이 되었다. …… 강의가 끝나자, 기사사 도징 스님이 다시 서향고좌에 올라가, 이렇게 고기를 금하는 경문을 낭독하고 그 다음에 전하는 말을 낭독하였다.

④는 『法華傳記』 중 당나라 자문사(慈門寺) 승려 효자(孝慈)에 대한 기록으로, ‘西高座’라는 표현이 나타난다. 이는 앞서 살펴본 ‘북좌’, ‘남좌’와는 구분되는 표현이며, ‘서고좌’라는 표현으로 추정컨대, 이와 대칭인 ‘동고좌’가 있었을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생각된다.

⑤는 『廣弘明集』 중 남조 양나라 광택사(光宅寺)에 관한 기록이다. 여기에서는 상술한 ‘서고좌’와는 또 다른 표현, 즉 ‘東向高座’ 및 ‘西向高座’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이는 방위사와 고좌 사이에 ‘向’자를 삽입하여 고좌의 방향성을 강조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동(서)향고좌’는 ‘동쪽(서쪽)을 향하고 있는 고좌’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이 서로 대칭으로 배치되었다고 가정한다면, ‘동향고좌’는 서쪽에, ‘서향고좌’는 동쪽에 각각 놓였을 것이며, 법사는 서쪽의 동향고좌에, 도강은 동쪽의 서향고좌에 각각 자리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동서 방향의 고좌는 일본 고대 사찰 강당에 설치된 고좌대의 위치와도 매우 유사하여 주목된다. 현재 일본 당초제사(唐招提寺) 강당(8세기)과 법룡사(法隆寺) 서원가람 대강당(10세기)의 내진 중앙 수미단 양 옆 제1협칸에는 논의대(論議臺)라고도 불리는 동서 고좌

26) 諸寺의 僧尼를 管掌하며 講說하는 者를 講師라 하고, 講師를 補佐하며 여러 가지 佛事를 맡아 보는 이를 讀師라 함.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보리각, 1982, 87쪽, ‘강독사(講讀師)’ 참조]

27) 釋道世 撰, 周叔迦·蘇晋仁 校注, 『法苑珠林校注』, 卷第二十八, 雜異部第五, 中華書局, 2003, 865쪽

28) 『聯燈會要』, 第30卷, 誌公和尚十四科 眞俗不二 (X79n1557_030, CBETA)

29) 양은경의 선행연구에서도 강당 서쪽 또는 서남쪽에 고좌가 있었다는 문헌 사례가 언급되었으나, 이는 고좌(高座)가 아닌 고상(高床) 또는 상(床)이므로 본 장의 문헌 사례 검토에서 제외하였다. <각주 6> 참고.

30) 『法華傳記』, 第9卷, 慈門寺僧孝慈二十一 (T51n2068_009, CBETA)

31) 『廣弘明集』, 第26卷, 慈濟篇 (T52n2103_026, CBETA)

대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7, 8>

그중 서쪽에 위치하여 동쪽을 향하고 있는 고좌는 강사의 자리이며, 동쪽에 위치하여 서쪽을 향하고 있는 고좌는 독사의 자리인데,³²⁾ 이는 바로 ⑤에서 언급하고 있는 법사, 도강의 자리와 일치하고 있어 흥미롭다.



그림 7. 당초제사 강당 내부

[출처: 工藤圭章, 『奈良の寺(18): 唐招提寺 金堂と講堂』, 岩波書店, 1974]



그림 8. 법룡사 서원가람 대강당 내부

[출처: 淺野清・渡辺義雄, 『奈良の寺(1): 法隆寺 西院伽藍』, 岩波書店, 1974]

상술한 내용을 종합하면, 문헌 기록 속의 고대 사찰 강당 고좌대 배치 수법은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의 두

가지로 나타났으며,³³⁾ 이는 고려사원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와 일본 고대 사찰 강당 동서 고좌대 사례와 각각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문헌을 통해 고좌의 규모, 재료, 장식 등도 알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⑥ 上敬天竺教, 十二年冬, 制二高座賜新安國寺. 一爲講座, 一曰唱經座, 各高二丈. 研沉香爲骨, 以漆塗之, 鏤金銀爲龍鳳花木之形, 徧覆其上. 又置小方座, 前陳經案, 次設香盆, 四隅立金穎伽, 高三丈.³⁴⁾

의종이 천축교(불교)를 섬기어 12년(871) 겨울에 두 고좌를 만들어 안국사에 베푸니, 하나는 강좌이고 하나는 창경좌인데 각각 높이가 2장이다.沉香목(沉香木)과 단목(檀木)을 갈아 뼈대를 만들고 옷칠을 하였다. 금은으로 새겨 넣은 용봉화목 문양이 그 위를 두루 덮었다. 또 작은 방좌를 설치하고 앞에 경안을 벌여놓았다. 다음 향분을 설치하고 네 귀퉁이에는 금빛 가릉빈가를 세웠는데 높이가 3장이다.

⑥은 당 의종의 명으로 장안 안국사(安國寺)에 설치된 두 고좌에 대한 기록으로, 당시 고좌의 크기, 재료, 장식 등을 전하고 있다. 즉, 강좌와 창경좌는 높이 2장으로,沉香목과 단목으로 제작하여 옷칠을 한 후 금은 문양을 새겨 넣어 완성하였다. 그리고 고좌는 방좌, 향분, 가릉빈가상 등과 함께 구성되었다. 이와 같이, 매우 크고 화려하게 장식된 당대(唐代)의 고좌는 고려사원 강당지 고좌대를 추정하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4. 맺음말

이상으로 고려사원 강당지 남북 방형단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황룡사지, 안양사지, 범수사지 등에서 조사된 강당지(또는 추정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는 조성 시기, 위치, 양상 등으로 볼 때, 서로 동일한 성격의 유구임이 확인되었다.<표 1>

둘째, 각종 문헌 기록을 검토한 결과, 고려사원 강당지 남북 방형단은 설법을 위한 강당 내부 고좌대 유구로 추정된다. 즉, 북편 방형단은 불경을 강의하는 강사(법사)의 좌대인 북좌 유구로, 남편 방형단은 불경을 낭독하는 독사(도강)의 좌대인 남좌 유구로 각각 추정할 수 있다.

33) 王翠玲도 그의 논문에서 법사와 도강의 위치를 남북상대지설(北南相對之說), 동서상대지설(東西相對之說)의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王翠玲, 『中國佛教的齋講』, 成大中文學報, 第14期, 2006.6, 88쪽)

34) 蘇鶚, 『杜陽雜編』, 卷下 (王翠玲, 위의 논문, 2006.6, 88쪽 재인용)

32) 望月信亨 主編, 塚本善隆 增訂, 『望月仙教大辭典』, 第二卷, 九版, 1980, 1075쪽

74 논문

표 1. 고려사원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

구 분	조성 시기	확인 위치	한 변 길이	비 고
황룡사 최종 강당지	고려 (1238년 소실 이전)	어칸 좌측 협간	3m	· 남편 방형단 석재 유구 소실 · 방형단 주위 전돌 확인
안양사 강당지	고려 (전기 또는 중기)	어칸	2.35m	· 계단 지대석 치석면 확인
법수사 추정 강당지	고려	어칸 좌측 협간	2.1m	· 방형단 주위 전돌 확인

본 연구는 제한된 발굴 자료 및 고대 불교 문헌 검토 위주로 진행되었으므로, 연구의 한계가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또한, 고려사원 강당지와 고려 이전 중국 문헌 사료 간의 시간적·공간적 차이 역시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의문이었던 강당지 남북 방형단 유구의 성격을 밝혀내고 추가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고려사원 강당 내부 공간 구성을 이해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釋道世 撰, 周叔迦·蘇晋仁 校注, 『法苑珠林校注』, 中華書局, 2003
2. 앤닌, 『입당구법순례행기』, 신복룡 역, 선인, 2007
3.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研究所, 『皇龍寺 遺蹟發掘調査報告書 I』, 1984
4.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황룡사 건물복원 기초연구』, 2012
5. 안양시·(재)한울문화재연구원, 『안양사지』, 2013
6. 성주군·(재)대한문화재연구원, 『法水寺址 三層石塔 주변 지역 2차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자료』, 2016.8.
7.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보림각, 1982
8. 장경호, 『백제사찰건축』, 예경산업사, 1991
9. 淺野清·渡辺義雄, 『奈良の寺 (1): 法隆寺 西院伽藍』, 岩波書店, 1974
10. 工藤圭章, 『奈良の寺 (18): 唐招提寺 金堂と講堂』, 岩波書店, 1974
11. 이승연, 「신라말~고려전기 선종사원의 상원영역 형성에 관한 연구 -법당의 출현과 전개과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0
12. 양은경, 「황룡사지 동서 금당지와 강당지의 불상봉안 여부와 존상명」, 신라사학보, 23호, 2011.12.
13. 王翠玲, 「中國佛教的齋講」, 成大中文學報, 第14期, 2006.6.
14. Chinese Buddhist Electronic Text Association (CBETA, <http://tripitaka.cbeta.org>)

15.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접수(2017. 2. 15)
수정(1차: 2017. 3. 27)
게재확정(2017. 4. 4)